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인성*, 황경수**, 오윤정***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제2의 인생설계, 건강, 퇴직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본거지에서 타지역으로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이주민들의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를 살펴보고, 이주민들이 이주대상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제주지역에 이주한 도시민의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방안 연구」(2014)의 귀농귀촌이주자와 문화이주자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93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첫째, 이주특성에 따른 이주적응도에서는 정착기간에 따라 본인의 이주적응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887$, $p<.05$)가 나타났고, 둘째, 이주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경우, 이주유형에 따라 교육환경 만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주저자)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제2저자)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제3저자)

도($t=2.204$, $p<.05$)와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만족도($t=-2.217$, $p<.05$)가, 이주준비기간에 따라 경제활동환경 만족도($F=2.702$, $p<.05$)가, 지자체 사업 수혜경험에 따라 보건복지환경 만족도($t=2.055$, $p<.05$)와 지원정책 만족도($t=5.484$,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정착이주민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일반적 특성, 이주특성, 이주적응도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 이주특성, 이주적응도 3개 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델 II 만 모형적합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자녀 이주적응도($\beta = .334$), 본인 이주적응도($\beta = .292$), 이주전 거주지역($\beta = -.1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착이주민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및 지역민과 이주민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제주지역, 정착이주민, 이주특성, 이주적응도, 생활만족도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서 우선 정착이주민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제주로 이주한 정착이주민의 이주특성이 이주적응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원주민과 이주민의 융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도시민의 이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주민 증가는 인구증가와 함께 과거와는 다른 이주유형의 변화, 관련 정책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인구증가 및 이주유형의 변화이다. 제주도 인구가 2016년 12월 기준으로 66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57만에 머물던 제주지역 인구는 2013년 1만2221명이 유입되며 6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4년 1만

6880명, 2015년 1만9805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제주의소리, 2017년 1월 9일). 또한 이주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과거 장년층이상의 귀농귀촌 이주에서 점차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융성추진단(2014년 1월 8일 설치)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적극적인 문화융성 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레지던스(residence)사업 등으로 인해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이주민 지원 정책의 변화이다. 기존의 이주민 지원정책은 귀농귀촌, 다문화, 외국인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3년 사이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2014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 균형발전과 내에 정착주민 지원계를 신설하여 「제주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한 정착이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도모하고자 종합적인 이주민 정책수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도시민의 타지역으로의 이주에 대한 연구는 귀농귀촌 이주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귀촌행태의 유형화 및 시사점 연구(유학열, 2011; 이민수 외, 2012) 귀농귀촌인의 삶의 만족도 및 영향요인 연구(박공주 외, 2006; 오수호, 2012; 우성호, 2013; 이상호, 2008; 황정임 외, 2011)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이창우 외, 2013; 강대구, 2010; 김정섭, 2009; 박문호 외, 2012)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주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이주가족의 적응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도시를 떠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 이주 외에 자녀교육, 건강, 문화생활 영유 등을 위해 도시에서 타지역으로의 이주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이주유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이주특성에 따른 이주적응도와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 연구대상을 귀농귀촌이주자와 함께 문화이주자까지 확대하였고, 이주자 본인과 더불어 배우자 및 자녀의 이주적응도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주민들이 제주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정착이주민의 개념 및 도시민의 이주 특성

1) 정착이주민의 개념 정의

이주민의 개념은 2000년 이전으로 올라가서 살펴볼 수 있다. 이주민이 개념에 대해 다룬 가장 초기의 연구는 성경으로서, 특히 구약성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주민’을 표현하는 단어인 ‘게르’에 대한 개념 연구는 오래 전부터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¹⁾. 게르는 1921년 발표된 막스베버(M. Weber)의 논문에서는 시대별로 시간이 흐르면서 ‘게르’의 개념도 변한다고 주장하였고, “자신들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과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²⁾. 구약 오경에는 ‘게르’가 세 가지 개념으로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다(김해성 외, 2010). 첫째, 외국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1) 김해성 외, 2010,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주민’의 개념에 관한 연구」, 375-376쪽. 오경에서는 신명기에 22회, 레위기 21회, 출애굽기에 12회, 그리고 민수기에 11회에 걸쳐 게르가 언급되고 있으며, 외국인, 이방인 혹은 나그네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법 조항에서는 ‘게르’들에 대해서도 법적용을 동등하게 하나를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2) 스피나(F.A.Spina), 1983, “Israelites as gerim, 'Sojourners'”, 321-35쪽. “게림(게르의 복수형)으로서의 이스라엘 이라는 논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 전에는 게르였다는 전승의 진정성에 이문을 제시하였고, 그는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유목민이 소유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인을 의미하는데 이 때 가장 좋은 번역은 ‘이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신명기, 계약법전과 소수의 제사장 자료에서의 ‘게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당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속적인 위치에 놓은 이주민을 의미한다. 이 때 가장 적절한 번역은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셋째, 성격법전의 여러 곳과 제사장 자료에서 사용되어 있는 ‘게르’로 본토에서 태어난 자들과 똑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서 이주민(移住民)의 사전적 개념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가서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 와서 사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주민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³⁾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에 대해 제주지역에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적응을 도모하며, 도민과 정착주민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이주민을 정착주민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정착주민의 개념을 “외국 혹은 타 시도에서 장기간 거주하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하여 제주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제주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주민, 정착주민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정착이주민”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기존 이주민 관련 다양한 정의들을 참고하여 정착이주민이란 “외국 혹은 타 시·도에서 제주로 이주하여 실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의 이주민”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정착이주민의 정의에 거주기간을 명시한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타지역 이주민을 지

3) 2011년부터 제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아졌으며, 전입인구의 수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주시의 경우, 2011~2013년 전출인구는 매년 15천여명 수준으로 유사한 반면, 전입인구는 같은 시기 16,662명, 18,150명, 20,180명으로 증가하였고, 서귀포시의 경우, 2011~2013년 전출인구는 매년 5천여명 수준으로 유사한 반면, 전입인구는 같은 시기 6,211명, 7,095명, 8,083명으로 증가하였다.(자료: 제주시·서귀포시 전출입 현황, 2013)

원하는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전입 5년 이하의 이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5년이 지나면 지역에 적응될 수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였고, 거주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어 지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2) 도시민의 타지역으로의 이주 특성

귀촌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민의 타지역으로의 이주현상은 시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중반에는 철학적 이념에 의한 의도적인 귀촌이 주를 이루었으나(홍성권 외, 2013), 1998년 외환위기 시기에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도시민들의 생계형 귀농이 급증하였다. 2000년대 들어 경제상황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촌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동기에 따라 귀촌했던 농촌이주자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유형의 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1)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 거주를 희망하는 이유 중에서도 “도시의 경쟁적인 삶을 떠나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과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귀촌 이주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귀촌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만족도 제고라는 새로운 이유로 인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귀촌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귀촌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도시민의 귀촌 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귀촌 동기를 중심으로 유형화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귀촌 동기는 이주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귀촌 이후의 삶에서도 생활양식 및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창환 외(2007)의 연구에서는 전남지역 귀농자의 귀농동기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사업실패 및 실직), 건강목적, 쾌적한 환경 및 영농승계, 대안문화 추구하고 밝은 농업전망 및 합리적 노후생활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외적 동

기로 귀농한 경우도 절반이상으로 나타나 다양한 형태의 귀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해진(2013)의 연구에서는 귀농 귀촌 동기 유형을 ‘경제효용형’, ‘대안가치형’, ‘생활편의형’으로 구분하였고, 이 유형 중 대안가치형에 초점을 두고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대안가치형 귀농귀촌인들의 주요 특징은 청장년층과 노년층에서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절반 가량이 40대에 귀농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의 삶을 벗어나 전원생활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효용형 및 생활편의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자로 나타났고,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농업외 소득이 많은 2종 겸업이나 비농업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수 외(2012)의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동기에 따라 이주한 도시민을 유형화 하기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의 4가지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귀농귀촌유형별 귀농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각 유형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오수호(2012)의 연구에서는 농촌 지향 이주 가구의 귀촌적응과정과 영농실태를 분석하였는데, 귀촌동기 1순위로 이상적인 삶, 사업실패 및 실직 탈피, 밝은 농업전망, 노후대비, 건강관리 목적으로 나타났다. 홍선권 외(2013)의 연구에서는 귀촌의향자와 귀촌인의 귀촌이유를 비교분석한 결과, 귀촌 의향자의 경우, 농산촌생활이 좋아서(전원, 쾌적함, 여유로움), 은퇴 후 여가생활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순으로 나타난 반면, 귀촌인의 경우, 농산촌생활이 좋아서, 추구하는 가치를 찾기 위해서, 도시생활이 불편해서(혼잡, 오염)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귀촌의 행태가 점차 경제적 이유 외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농촌생활이 좋아서, 이상적인 삶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도시생활을 탈피하기 위해서 등 궁극적으로 최근의 이주현상은 도시민들이 기존의 삶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이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주 적응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적응이라는 현상은 그 사람의 욕구가 과연 그 환경 속에서 만족되느냐, 만족되지 않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이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적응 상태에 있게 된다. 사회적 의미에서 볼 때 적응은 한 개인이 사회의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에 잘 부합하는 상태와 과정으로 정의되며,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 및 외적·사회적 환경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의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정용교·유명철, 2012). 도시민의 귀촌지역에서 적응은 주거 확보, 새로운 직업 및 기술의 습득, 정신적 불안 극복, 농촌 생활 양식 및 문화가치의 습득 등 귀농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착이 주민의 사회적응은 이주사회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미묘한 문화적 기준과 새 가치방향을 습득하여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함을 의미한다. Fielding(1974)은 이주 과정을 이주 동기의 형성, 이주 의사결정, 이주 실행까지의 이주 탐색단계와 이입지에서의 정착 및 적응이라는 이주 적응단계 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이주자가 이입지에서 욕구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환이동을 하거나 재이주를 할 수도 있으며, 만일 적응이 성공적이면 다른 사람들의 이주를 돕거나 자극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귀농이 새로운 직업선택인 만큼 농촌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다.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이 농업이라는 새로운 활동과 농촌이라는 생소한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박공주 외, 2006).

생활만족은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황정임 외, 2011), 귀촌인의 생활만족도는 귀촌인의 이주적응 상태를 가늠하는 주요한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농촌 정착 귀농인의 농촌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연령,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가족형태 등이 알려져 있다. 박공주 외(2006)의 연구에서는 사

회인구학적 변인, 농촌 이주전 변인, 농촌 이주 후 변인으로 나누어 농촌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혼자보다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수록, 주관적 경제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영농교육 도움 수준 및 농촌 이주자금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들과의 관계 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가 높을수록 농촌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호(2008)는 경북 지역 귀농인을 대상으로 지역 만족도와 지역 주민과의 관계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연령이 젊을수록, 귀농준비 기간이 충분할수록, 학력이 대졸에 비해 고졸일수록 지역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젊을수록, 대졸에 비해 고졸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임 외(2011)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귀농준비기간이 길수록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사업수혜여부가 농촌생활 만족도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수행된 도시민의 귀촌에 관련된 연구들은 실제 귀촌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홍성권 외, 2013). 즉 도시민의 타지역 이주후 이주적응 및 이주 지역에 융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이주정착한 정착이주민들의 이주특성, 이주적응도,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정착이주민들이 제주지역에 융화될 수 있는 이주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Ⅲ. 제주지역 정착이주민 이주적응도 및 생활만족도 분석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타지역에서 제주도로 이주한 정착이주민의 이주적응도와 생활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고, 이주특성이 이주적응도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정착이주민은 아직까지 국내이주의 대다수를 이루는 귀농귀촌이주자와 타지역과는 다른 제주지역만의 특색인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의 제주로의 이주(문화 이주)를 포함하였다. 분석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2014) 보고서의 데이터로,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93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우선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293명의 응답자 중 남성은 158명(53.9%), 여성은 135명(46.1%)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40대(36.6%), 30대 이하(28.1%), 50대(27.4%), 60대 이상(7.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부문은 전문대졸 이상이 83.8%로 비교적 고학력으로 나타났고, 주거 유형은 자가(38.7%), 월세(32.5%), 전세(11.3%)의 순으로 나타났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역은 서귀포시 읍면지역(47.9%), 서귀포시 동지역(33.9%), 제주시 읍면지역(13.2%), 제주시 동지역(5.0%)로 나타나 서귀포지역 거주자가 81.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주전 거주지역은 서울 및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제주로 이주한 이주자(84.6%)가 대도시외지역 이주자(15.4%)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주특성을 살펴보면, 이주준비기간은 1년 미만(57.7%), 1년-2년미만(20.8%), 2년-3년미만(12.6%)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제주정착기간은 1년 미만(30.8%), 1년-2년미만(26.4%), 2년-3년미만(16.4%), 4년이상(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유형 부문은 귀농귀촌 이주 83.7%, 문화 이주 16.3%로 나타났고, 지자체 사업 수혜 여부 부문에서는 수혜받았다(30.6%), 수혜받지 않았다(69.4%)로 나타났으며, 이주비용 부문은 1억-3억미만(42.5%), 1억미만(38.8%), 3억-5억미만(11.7%), 5억이상(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N=293)	남 여	158 135	53.9 46.1
	연령 (N=292)	30대 이하	82	28.1
		40대	107	36.6
		50대	80	27.4
		60대 이상	23	7.9
	학력 (N=291)	고졸이하	47	16.2
		전문대졸	63	21.6
		대졸	145	49.8
		대학원이상	36	12.4
	주거유형 (N=292)	자가	113	38.7
		전세	33	11.3
월세		95	32.5	
무상		23	7.9	
기타		28	9.6	
현재 거주지역 (N=280)	제주시동지역	14	5.0	
	제주시읍면지역	37	13.2	
	서귀포시동지역	95	33.9	
	서귀포시읍면지역	134	47.9	
이주전 거주지역 (N=293)	대도시 ⁴⁾	248	84.6	
	대도시외	45	15.4	
이주 특성	이주준비기간 (N=293)	1년미만	169	57.7
		1년-2년미만	61	20.8
		2년-3년미만	37	12.6
		3년-4년미만	7	2.4
		4년 이상	19	6.5
	제주정착기간 (N=292)	1년미만	90	30.8
		1년-2년미만	77	26.4
		2년-3년미만	48	16.4
		3년-4년미만	37	12.7
		4년 이상	40	13.7
	이주유형 (N=289)	귀농귀촌 이주	242	83.7
		문화 이주	47	16.3
	지자체 사업 수혜여부 (N=291)	예	89	30.6
		아니오	202	69.4
	이주비용 (N=240)	1억미만	93	38.8
		1억-3억미만	102	42.5
		3억-5억미만	28	11.7
5억이상		17	7.1	

2. 측정도구

1) 이주적응도

귀농자가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정도가 귀농 인구이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박공주 외, 2007)으로서 Fielding(1974)은 이주과정을 이주 동기의 형성, 이주 의사결정, 이주 실행까지의 이주 탐색단계와 이입지에서의 정착 및 적응이라는 이주적응단계의 2단계과정으로 나누었다. 즉 귀농의 성공여부는 이주지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이주적응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오수호(2012)의 연구에 의하면 귀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배우자로 나타났다. 이는 귀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의 성패는 본인의 이주적응도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함께 이주한 가족구성원의 이주적응도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착이주민의 이주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인, 배우자, 자녀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귀하 및 귀하의 가족께서는 제주이주 후 제주문화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매우 적응 안됨=1점’에서 ‘매우 적응됨=5점’)을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주적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정착이주민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우성호(2013)의 귀농·귀촌 결정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의 척도와 황정임 외(2011)의 농촌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생

4) 서울 및 광역시에서 이주한 경우 해당함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분석 연구의 척도 중 일부를 선택·활용하였고, 구체적인 생활만족도 설명변수로서 자연환경, 여가문화환경, 거주지환경, 교육환경, 경제활동환경, 보건복지환경,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환경, 지원정책환경의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을 이용하여 파악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값은 .736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지의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2014) 보고서의 귀농귀촌이주자와 문화이주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부호화과정(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인식하고 있는 이주적응도, 생활만족도, 이주전후의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연구대상의 이주 특성 및 이주적응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4. 정착이주민의 이주적응도 분석

이주특성에 따른 이주적응도를 분석한 결과, 제주정착기간에 따른 이주적응도는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3년-4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본인’변수만 제주정착기간에 따라 이주적응도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887$, $p=.023$)가 나타났다. 이주유형에 따른 이주적응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문화이주가 귀농

귀촌이주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의 경우, 귀농귀촌이주가 문화이주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비용에 따른 이주적응도는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이주비용이 1억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경우, 이주적응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정착이주민의 이주적응도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	
		N	M(SD)	N	M(SD)	N	M(SD)
이주 준비 기간	1년미만	16 9	3.78(.985)	13 3	3.74(.961)	73	3.81(.995)
	1년- 2년미만	61	3.66(.814)	47	3.77(.937)	31	3.77(1.087)
	2년- 3년미만	36	3.81(.822)	31	3.90(.651)	20	4.10(.641)
	3년- 4년미만	7	4.43(.787)	4	3.50(1.291)	3	3.67(1.155)
	4년 이상	19	4.00(1.054)	13	3.77(1.013)	11	3.82(1.168)
	F값 (p값)	1.381(.241)		.284(.888)		.421(.794)	
제주 정착 기간	1년미만	90	3.53(.939)	65	3.57(.901)	42	3.71(.891)
	1년-2 년미만	77	3.90(.940)	62	3.73(.853)	31	3.71(1.039)
	2년-3 년미만	48	3.79(.798)	35	4.00(.804)	23	3.87(1.058)
	3년-4 년미만	37	4.05(.848)	32	4.06(.878)	17	4.29(.772)
	4년 이상	40	3.90(1.057)	34	3.68(1.147)	25	3.88(1.092)
	F값 (p값)	2.887*(.023)		2.288(.061)		1.238(.298)	
이주 유형	귀농귀 촌	24 1	3.76(.944)	19 3	3.75(.931)	11 8	3.89(.968)
	문화	47	3.94(.895)	31	3.84(.898)	18	3.61(1.037)
	t값 (p값)	-1.184(.373)		-.516(.719)		1.128(.755)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	
		N	M(SD)	N	M(SD)	N	M(SD)
사업 수혜 여부	예	89	3.79(.994)	69	3.77(.807)	45	3.64(.981)
	아니오	20 1	3.79(.914)	15 8	3.76(.974)	93	3.94(.976)
	t값 (p값)	-.038(.671)		.064(.091)		-1.640(.509)	
이주 비용	1억미만	93	3.86(.892)	69	3.96(.775)	36	4.08(.874)
	1억- 3억미만	10 1	3.73(.948)	83	3.61(.961)	58	3.76(.979)
	3억- 5억미만	28	3.75(1.076)	25	3.72(1.100)	15	3.47(1.187)
	5억이상	17	3.65(.606)	14	3.64(.745)	11	3.55(.688)
	F값 (p값)	.450(.718)		1.896(.132)		1.962(.124)	

*p<.05, **p<.01, ***p<.001

5.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 분석

이주특성에 따른 정주환경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자연환경 만족도, 여가문화환경 만족도, 거주지환경 만족도의 경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주환경 만족도 1

구분		자연환경 만족도		여가문화환경 만족도		거주지환경 만족도	
		N	M(SD)	N	M(SD)	N	M(SD)
이 주 준 비 기 간	1년미만	169	4.63(.642)	167	3.20(1.164)	166	3.67(1.029)
	1년- 2년미만	61	4.46(.808)	60	3.30(.926)	60	3.53(.833)
	2년- 3년미만	37	4.54(.505)	37	3.22(1.084)	37	3.70(.777)
	3년- 4년미만	7	4.71(.488)	7	3.57(1.134)	7	4.43(.787)
	4년 이상	19	4.47(.772)	19	2.84(1.119)	19	3.79(1.032)
	F값 (p값)	.980(.419)		.814(.517)		1.489(.206)	
제 주 정 착 기 간	1년미만	90	4.52(.824)	90	3.17(1.173)	89	3.65(1.012)
	1년- 2년미만	77	4.62(.514)	77	3.08(1.167)	77	3.53(1.107)
	2년- 3년미만	48	4.58(.647)	46	3.17(1.060)	46	3.72(.861)
	3년- 4년미만	37	4.62(.639)	37	3.49(.961)	37	3.81(.701)
	4년 이상	40	4.58(.636)	39	3.36(.986)	39	3.79(.864)
	F값 (p값)	.280(.891)		1.078(.368)		.789(.533)	
이 주 유 형	귀농 귀촌	242	4.55(.693)	239	3.21(1.067)	238	3.64(.979)
	문화	47	4.72(.498)	47	3.21(1.284)	47	3.83(.868)
	t값 (p값)	-1.599(.111)		-.044(.965)		-1.246(.214)	
사 업 수 혜 여 부	예	89	4.57(.620)	87	3.22(1.094)	87	3.64(1.034)
	아니오	202	4.58(.696)	201	3.21(1.112)	201	3.69(.931)
	t값 (p값)	-.072(.943)		.066(.947)		-.347(.729)	

구분		자연환경 만족도		여가문화환경 만족도		거주지환경 만족도	
		N	M(SD)	N	M(SD)	N	M(SD)
이 주 비 용	1억미만	93	4.62(.550)	92	3.27(1.187)	92	3.64(1.065)
	1억-3억미만	102	4.53(.853)	101	3.23(1.028)	101	3.51(.945)
	3억-5억미만	28	4.61(.497)	28	3.04(1.036)	28	3.96(.706)
	5억이상	17	4.71(.470)	17	3.06(1.088)	17	3.71(.772)
	F값 (p값)	.505(.680)		.449(.718)		1.605(.189)	

*p<.05, **p<.01, ***p<.001

반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환경 만족도는 귀농귀촌 이주자가 문화이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024$, $p=.044$)가 나타났다. 경제활동환경 만족도는 이주준비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년 미만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702$, $p=.031$)가 나타났다. 보건복지환경 만족도는 지자체 사업 수혜경험이 있는 응답자(2.95)가 수혜경험이 없는 응답자(2.73)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055$, $p=.041$)가 나타났다.

〈표 4〉 정주환경 만족도 2

구분		교육환경 만족도		경제활동환경 만족도		보건복지환경 만족도	
		N	M(SD)	N	M(SD)	N	M(SD)
이주 준비 기간	1년미만	158	3.23(.815)	167	2.54(.896)	168	2.85(.869)
	1년-2년미만	57	3.33(.787)	58	2.66(.762)	60	2.73(.778)
	2년-3년미만	36	3.25(.937)	37	2.76(.863)	37	2.81(.908)

구분		교육환경 만족도		경제활동환경 만족도		보건복지환경 만족도	
		N	M(SD)	N	M(SD)	N	M(SD)
	3년-4년미만	7	3.29(.756)	7	3.43(1.134)	7	3.00(.816)
	4년 이상	15	3.07(.884)	18	2.94(.725)	18	2.56(.922)
	F값(p값)	.345(.847)		2.702*(.031)		.668(.615)	
제주 정착 기간	1년미만	81	3.25(.874)	90	2.48(.824)	90	2.67(.821)
	1년-2년미만	76	3.16(.910)	77	2.73(.982)	76	2.80(.938)
	2년-3년미만	43	3.19(.732)	43	2.60(.821)	46	2.93(.772)
	3년-4년미만	34	3.35(.691)	37	2.81(.877)	37	2.95(.911)
	4년 이상	38	3.42(.758)	39	2.72(.793)	40	2.83(.813)
	F값(p값)	.838(.502)		1.423(.227)		1.106(.354)	
이주 유형	귀농 귀촌	225	3.29(.764)	237	2.64(.885)	240	2.76(.858)
	문화	44	3.04(1.023)	47	2.64(.819)	46	3.02(.802)
	t값(p값)	2.024*(.044)		-.008(.993)		-1.926(.055)	
사업 수혜 여부	예	82	3.21(1.003)	88	2.60(.838)	88	2.95(.883)
	아니오	190	3.26(.738)	198	2.65(.887)	201	2.73(.835)
	t값(p값)	-.512(.609)		-.441(.660)		2.055*(.041)	
이주 비용	1억미만	87	3.34	91	2.68(.880)	92	2.87(.880)
	1억-3억미만	93	3.18	101	2.53(.867)	101	2.61(.812)
	3억-5억미만	27	3.11	28	2.57(.634)	28	2.96(.793)
	5억이상	15	3.27	16	2.69(1.014)	16	2.88(.806)
	F값(p값)	.897(.444)		.529(.663)		2.194(.090)	

*p<.05, **p<.01, ***p<.001

이주특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문화이주자(3.13)가 귀농귀촌이주자(2.8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 = -2.217$, $p = .027$)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주특성에 따른 지원정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사업 수혜경험이 있는 응답자(3.17)가 수혜경험이 없는 응답자(2.53)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 = 5.484$, $p = .000$)가 나타났다.

〈표 5〉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만족도 및 지원정책 만족도

구분		지역주민과 네트워크 만족도		지원정책 만족도	
		N	M(SD)	N	M(SD)
이주 준비 기간	1년미만	168	2.82(.918)	167	2.72(.904)
	1년-2년미만	60	2.70(.889)	59	2.81(1.008)
	2년-3년미만	37	3.03(.763)	36	2.78(1.072)
	3년-4년미만	7	3.29(.951)	7	2.86(1.215)
	4년 이상	19	3.26(.933)	18	2.44(.984)
	F값(p값)	2.236(.065)		.568(.686)	
제주 정착 기간	1년미만	89	2.84(.916)	90	2.83(.951)
	1년-2년미만	77	2.86(.969)	76	2.71(.991)
	2년-3년미만	47	2.89(.866)	44	2.86(1.002)
	3년-4년미만	37	2.84(.928)	36	2.81(.889)
	4년 이상	40	2.88(.791)	40	2.35(.864)
	F값(p값)	.032(.998)		2.144(.176)	
이주 유형	귀농귀촌	240	2.81(.899)	238	2.71(.948)
	문화	47	3.13(.924)	45	2.87(1.036)
	t값(p값)	-2.217*(.027)		-1.011(.318)	
사업 수혜 여부	예	87	2.85(.959)	88	3.17(.861)
	아니오	202	2.86(.878)	198	2.53(.933)
	t값(p값)	-.051(.960)		5.484***(.000)	

구분		지역주민과 네트워크 만족도		지원정책 만족도	
		N	M(SD)	N	M(SD)
이주 비용	1억미만	92	2.96(.947)	91	2.70(.876)
	1억-3억미만	101	2.64(.844)	100	2.66(.901)
	3억-5억미만	28	2.96(.693)	28	2.61(1.031)
	5억이상	17	2.71(.985)	15	3.00(1.195)
	F값(p값)	2.172(.092)		.673(.570)	

*p<.05, **p<.01, ***p<.001

6.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의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 관련성 여부와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종속변수인 생활만족도의 하위변수는 이주적응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특성 중에서는 이주준비기간, 이주유형(귀농귀촌, 문화), 사업수혜여부와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이주준비기간이 길수록 경제활동만족도와 지역민과의 네트워크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주민 지원사업을 수혜한 경우, 보건복지만족도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이주자의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상관관계분석

	이주특성					이주적응도					생활만족도					⑮ 네트 워킹	⑯ 지원 정책
	① 준비 기간	② 정착 기간	③ 이주 유형	④ 사업 수혜	⑤ 이주 비용	⑥ 본인	⑦ 배우 자	⑧ 자녀	⑨ 자연	⑩ 여가 문화	⑪ 거주 지	⑫ 교육	⑬ 경제 활동	⑭ 보건 복지			
①	1																
②	-.074	1															
③	.178**	-.13*	1														
④	-.018	-.107	.049	1													
⑤	.220**	.057	.14*	-.02	1												
⑥	.072	.14*	-.070	-.02	-.07	1											
⑦	.06	.106	-.05	.04	-.117	.58**	1										
⑧	.06	.122	.07	-.13	-.20*	.45**	.53**	1									
⑨	-.05	.029	-.094	-.04	.08	.239**	.113	.119	1								
⑩	-.09	.08	-.08	.04	-.09	.18**	.15*	.224**	.154**	1							
⑪	.09	.05	-.074	-.02	.02	.367**	.322**	.254**	.29**	.35**	1						
⑫	-.021	.077	.123*	-.081	-.06	.214**	.182**	.375**	.19**	.304**	.208*	1					
⑬	.163**	.100	.000	-.05	-.03	.343**	.225**	.180*	.155**	.236**	.282**	.285**	1				
⑭	-.061	.091	-.114	.12*	-.02	.168**	.128	.161	.137*	.320**	.288**	.419**	.370**	1			
⑮	.137*	.000	-.130*	-.03	-.03	.364**	.206**	.217*	.064	.170**	.281**	.209**	.449**	.372**	1		
⑯	-.081	-.115	-.060	.309**	-.081	.148*	.050	.146	.196**	.198**	.222**	.183**	.281**	.274**	.353**	1	

*p<.05, **p<.01, ***p<.001

그리고 자연환경 만족도, 보건복지만족도, 지원정책만족도는 이주 적응도 가운데서도 본인 이주적응도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가문화 만족도, 거주지 만족도, 교육 만족도, 경제활동 만족도, 네트워크 만족도는 본인 적응도와 함께 배우자 적응도와 자녀적응도까지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착이주민의 본인, 배우자, 자녀의 이주적응도가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여가문화환경, 거주지환경, 교육환경, 경제활동환경, 지역주민과 네트워크환경)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고, 특히 정착이주민의 일반적 특성,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의 하위변인이 생활만족도에 어떤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I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일반적 특성과 이주특성을 투입한 분석모형이다. 일반적 특성 변수와 이주특성의 5가지 하위요인(이주준비기간, 정착기간, 이주유형, 지원사업 수혜여부, 이주비용)은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대해 7.6%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R^2=.076$), 모델의 적합성은 9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F=.981$, $p=.460$)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이주전 거주지역 변수만 $p<.05$ 수준에서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t=-2.394$, $p=.018$)으로 나타났다고, 이주특성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모델 I의 요인과 함께 이주적응도의 하위변인 3가지를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이다. 생활만족도를 24.4%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R^2=.244$, $F=2.793$, $p<.01$)로 나타났다. 이주전 거주지역 변수는 $p<.05$ 수준에서 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t=-2.032$, $p=.045$)으로 나타났고, 본인 이주적응도($t=2.831$ $p=.006$)와 자녀 이주적응도($t=2.943$, $p=.004$)는 $p<.01$ 수준에서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델 II의 유의한 변수별 영향력은 자녀 이주적응도($\beta=.334$)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본인 이주적응도($\beta=.292$), 이주전 거주지역($\beta=-.183$)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이주적응도가 높을수록, 본인의 이주적응도가 높을수록, 이주전에 대도시 외 지역에 거주할수록 현재 정착지의 생활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정착이주민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구분		모델 I			모델 II		
		B (S.E)	Beta	t	B (S.E)	Beta	t
상수		3.409 (.297)		11.490***	2.196 (.407)		5.393***
일반 적 특 성	성별1)	.097 (.016)	.088	.913	.040 (.099)	.036	.403
	연령	.015 (.071)	.021	.206	.095 (.073)	.134	1.307
	주거유형2)	.006 (.113)	.006	.056	-.007 (.105)	-.007	-.070
	이주전3) 거주지역	-.324 (.135)	-.232	-2.394*	-.256 (.126)	-.183	-2.032*
	이주 준비기간	-.011 (.047)	-.025	-.235	-.043 (.044)	-.095	-.977
이 주 특 성	정착기간	.020 (.037)	.055	.546	.001 (.035)	.002	.018
	이주유형4)	-.125 (.153)	-.080	-.815	-.142 (.142)	-.091	-.995
	지원사업 수혜여부5)	-.072 (.111)	-.063	-.647	-.006 (.103)	-.005	-.058
	이주비용	.010 (.062)	.017	.167	.057 (.059)	.095	.968

구분		모델 I		모델 II	
		B (S.E)	Beta t	B (S.E)	Beta t
이 주 적 응 도	본인			.172 (.061)	.292 2.831**
	배우자			-.105 (.064)	-.175 -1.632
	자녀			.184 (.063)	.334 2.943**
F값		.981(ns)		2.793**	
R2		.076		.244	
수정된 R2		-.001		.156	

*p<.05, **p<.01, ***p<.001, ns=not significant

1) 성별 : 1=남성, 0=여성

2) 주거유형 : 1=자가, 0=자가 외

3) 이주전 거주지역: 1=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0=대도시 외

4) 이주유형 : 1=귀농귀촌, 0=문화

5) 지원사업 수혜여부 : 1=받은적 있음, 0=받은적 없음

이러한 결과는 기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농귀촌 이주민 본인 대상의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실시체계에서 이주 자녀의 이주적응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전환 또는 병행하는 것이 정착이주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검증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주전 거주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기타특성을 가지는 도시인지에 따라 그들의 이주후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여구를 참고로 하여 이주자녀의 이주적응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주출발지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달리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및 요약

최근 제2의 인생설계 등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주민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타지역에서 이주해온 정착이주민의 이주적응도와 생활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기존 도시민의 귀촌에 대한 연구가 귀농한 당사자에게만 집중된 가운데, 그들의 영농실태, 교육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제약을 극복하고, 이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이주적응도 등을 분석하고, 정착이주민의 지역사회 융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제주지역은 최근 3년 사이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젊은층 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 이주자뿐만 아니라 문화이주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이주유형(귀농귀촌이주, 문화이주)간의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특성에 따른 이주적응도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본인’의 경우에만 제주정착기간에 따라 이주적응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887$, $p<.05$)가 나타났고,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주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환경 만족도는 이주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204$, $p<.05$)가 나타났고, 경제활동환경 만족도는 이주준비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702$, $p<.05$)가 나타났다. 보건복지환경 만족도는 지자체 사업 수혜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055$, $p<.05$)가 나타났고,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만족도는 이주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217$,

$p<.05$)가 나타났다. 지원정책 만족도는 지자체 사업 수혜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5.484$, $p<.001$)가 나타났다. 반면, 자연환경 만족도, 여가문화환경 만족도, 거주지환경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착이주민의 일반적 특성 및 이주특성, 이주적응도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과 이주특성을 투입한 모델 I의 모형적합도는 9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적 특성과 이주특성, 이주적응도를 투입한 모델 II는 모형 적합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24.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모델 I에서는 이주전 거주지역만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델 II에서는 이주전 거주지역은 95% 신뢰수준에서, 자녀 이주적응도와 본인 이주적응도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 이주적응도($\beta = .292$)보다 자녀 이주적응도($\beta = .334$)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은 향후 관련 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2.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주지역 정착이주민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및 지역민과 정착이주민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착시기별 차등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정착기간에 따라 본인의 이주적응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착기간이 3~4년 미만의 이주적응도(4.0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4년 이상(3.90), 1~2년 미만(3.90), 2~3년 미만(3.79), 1년 미만(3.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정착기간이 1년 미

만이거나 2~3년의 정착이주민들의 이주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이주가 실패하지 않도록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타지역으로의 이주는 귀농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귀농귀촌의향을 밝힌 도시민중 61%가 그 이유로 자연속에서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농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3.2%에 불과(마상열, 2012)하여 귀농이 아닌 귀촌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착시기별 정책수립시 이주경향 파악이 우선되어야하며, 이에 근거한 차등적인 정책이 수립될 때 정착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융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주유형 및 이주전 거주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분석 결과, 이주유형에 따라 교육환경 만족도와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주전 대도시에서 거주한 이주민보다 대도시 외 지역에서 이주한 이주민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민수·박덕병(2012)의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귀촌행태를 군집분석한 결과,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전원형’, ‘연농승계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고, 귀농을 이유로 하는 ‘연농승계형은 8.4%에 불과한 반면, 전원형(37.3%)과 기업가형(36.1%)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민의 이주목적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의 은퇴 후 제2의 삶을 위한 귀농귀촌 이외에도 창작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이주, 자녀 교육을 위한 이주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이주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귀농귀촌 이주는 영농정보 제공, 농기구 임대, 귀농귀촌 프로그램 제공 등이 중요하지만 문화이주의 경우, 문화예술작업 및 전시 공간의 임대, 기존 직업과의 연계 가능한 직업 알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도내 교육환경 및 학교의 종류 등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도시에 거주했던 이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지역의 교육환경, 여가문화환경의

개선 등 주거 및 생계와 관련된 부분 이외의 정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매력을 느낄만한 거시적인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구체적인 이주정보의 제공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이주준비기간, 이주유형, 지원사업 수혜경험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경상북도 상주시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귀농을 돕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에 상주시 부산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적극적인 이주민 유입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제주지역 이주를 희망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제주 이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적정한지, 귀촌을 통한 이주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업과 연결한 이주가 가능할지, 삶의 터전의 될 지역의 부동산시세는 어떠한지, 자녀와 함께 이주시 제주의 교육환경은 어떠한지 등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지역은 2014년 12월부터 각 읍면동마다 ‘정착주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러 센터를 찾아오는 정착주민은 찾아보기 힘들다(제주의소리, 2015년 4월21일). 이 외에도 정착주민 협의회, 정착주민 후견인제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착이주민들과 지역민들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모색이 필요하다. 정착이주민들이 제주지역에 융화되기 위해서는 가깝게는 거주지역의 지역민과의 네트워크 확대, 크게는 제주지역 정책 과정에의 참여가 필요하다. 오수호(2012)의 연구에 의하면 귀농귀촌자의 귀촌생활시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 독농가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즉 귀농귀촌인의 성공요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과 더불어 농촌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을주민들과 친화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타지역에 비해 폐쇄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고, 제주로 이주한 일부 정착이주민들도 제주지역의 배타성을 제주 적응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먼저 정착이주민을 포용하는 관용문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이 정착이주민들을 지

역민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속적인 이주적응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주지역 정책과정의 참여도 독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특성에 따른 이주 적응도와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으나, 제주지역으로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반화되는 결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문화이주자의 경우, 축적된 데이터가 불충분하여 이주유형 비교 결과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사회는 출생률의 저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주민 유입정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 정책으로 중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주민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 및 관리, 다양한 이주민 유형의 통합적인 삶의 질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대구, 2010, 「귀농·귀촌의 현황과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7(4), 한국농촌지도학회, 743-771.
- 강수향·유계숙, 2011, 「이주민 유입의 영향과 이주민 지원 및 사회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분석」, 『가족과 문학』 23(2), 한국가족학회, 41-73.
- 고상환·김동현, 2011, 「제주지역 귀농귀촌 교육 참여자 특성 및 교육 만족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8(4), 한국농촌지도학회, 983-1010.
- 김성경, 2011, 「북한이탈주민 일상연구와 이주연구 패러다임 신고찰」, 『아태연구』 18(3),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1-21.
- 김소라·문승태, 2013, 「귀농인들의 귀농 전과 후 지각된 삶의 질 수준의 비교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40(3), 한국농식품정책학회, 841-863.
- 김용찬, 2008, 「서유럽국가 이주민통합정책의 수렴경향에 관한 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6(1), 대한정치학회, 89-110.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한국농촌지도학회, 533-556.
- 김해성 외, 2010,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주민'의 개념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제23호, 한국실천신학회, 371-396.
- 김혜숙·김도영, 2010,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사회정체성,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논문집, 296-297.
- 마상열, 2012,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식조사와 시사점』, 경남발전연구원.
- 박공주·김양희·박정운, 2007,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농촌 적응 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1), 대한가정학회, 9-21.
- 박공주·윤순덕·강경하, 2006,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계획』 12(4), 한국농촌계획학회, 63-76.
- 방희정, 2010,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인종에 대한 암묵적 태도와 명시적 태도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23(2), 한국심리학회, 125-140.
- 신지원, 2011, <이주민 통합의 개념과 정책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

-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69-185.
- 심성지, 2011,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서독의 동독 이주민 정책」, 『통일연구』 15(1),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167-196.
- 염미경, 2011, 「개발과 이주 그리고 주거지 분화: '해남촌' 사례를 통해서 본 제주사회 이주민 연구의 과제」, 『제주도연구』 35집, 제주학회, 1-38.
- 오수호, 2012, 「농촌지향 이주 가구의 귀촌적응과정과 영농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한국지역지리학회, 101-117.
- 유학열, 2011,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충남논단』 충남발전연구원, 18-25.
- 이민수박덕병, 2012, 「도시민의 귀촌행태 유형화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19(4), 한국농촌지도학회, 1137-1170.
- 이성순, 2012,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에이저(A.Ager)와 스트랭(A. Strang)의 사회통합 분석틀 적용」, 『사회과학연구』 24(3),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1-185.
- 이용승이화숙, 2013,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과 한국어 교육정책: 이주민 참여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5-336.
- 이창우지남석, 201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방안 연구」, 『농촌계획』 19(3), 한국농촌계획학회, 169-182.
- 이해진, 2013, 「대안가치지향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특성과 역할」, 『농촌사회』 23(2), 한국농촌사회학회, 49-90.
- 장임숙, 2011, 「이주민 소수자 정책의 정향과 정체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1), 한국정부학회, 145-167.
- 정용교·유명철, 2012, 「다문화 시민사회의 실태와 방향: 다문화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0(2), 대한정치학회, 285-306.
- 제주문화예술재단, 2013, 『제주의 문화다양성: 문화예술가의 제주이주 현황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 추진계획』.
- _____, 2014,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지원 방안 연구』.
- 조민경·김렬, 2010, 「한국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대한정치학회, 263-289.
- 조석주·박지영, 2012,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최권용, 2013,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교회 이주민목회 방안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박사논문.
- 행정안전부, 2012,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정책 연구 최종보고서』.
- 홍성권·김재현·김종진·장주연·태유리, 2013, 「도시민과 귀촌인의 삶의 만족도」, 『농촌계획』 19(4), 한국농촌계획학회, 237-248.
- 황정임·최윤지·조현민·윤순덕, 2011, 「농촌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8(4), 한국농촌지도학회, 729-764.
- Agesa, R. U. 2001, Migration and the Urban to Rural Earnings Difference: A Sample Selection Approach.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9(4), 847-865.
- Sellin, E. Fohrer, G. 1980, 「구양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Spina, A. F. 1983. Israelites as gerim, 'Sojourners', in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in: The World of the Lord. FS D. N. freedmann.
- 제주의소리, <제주도 인구 66만 돌파, 매달 1600명씩 ↑>, 2017. 1. 9. 기사.

Abstract

The Influence of Jeju-Newcomers' Characteristic and Fitness in Adapting on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Kim, In-Sung* · Hwang, Kyung-Soo** · Oh, Yun-Jung***

This study looks into changes of local policy demand from the recent surge of immigration from urban areas and makes suggestions for harmonious local communities.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immigrants who moved to Jeju from other parts of Korea to be a farmer or settle down as an artist. Effects of features of immigrants from urban areas and adaptation to new environment on life satisfaction are analyzed. Immigration data from 「Survey on immigrants to Jeju and ways to help them settle down」 published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293 properly answered questionnaires were chosen and used for the analysi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immigration adaptation by immigration type significantly varied by the period of settlement($F=2.887$, $p<.05$).

* Policy Consultative Commissioner,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Jeju National University

Second, the satisfaction level of educational environment($t=2.204$, $p<.05$)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relations with neighbors($t=-2.217$, $p<.05$) significantly varied by the type of immigration. The satisfaction level of economic environment meaningfully varied by the immigration period($F=2.702$, $p<.05$). The satisfaction level of health and welfare environment($t=2.055$, $p<.05$)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supportive policies($t=5.484$, $p<.001$) significantly varied according to whether an immigrant has experience of winning supportive aid from local governments.

Third,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immigrant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inputting general features, immigration features and the level of immigration adaptation gradually.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the model II that had all of the general features, immigration features and the level of immigration adaptation inserted was suitable. Independent variables affected the immigration adaptation most($\beta = .334$). The immigration adaptation of himself or herself($\beta = .292$) and the region where an immigrant had lived($\beta = -.183$) followed.

This study also proposes considerations needed when immigration policies are made and measures to harmonize area residents and immigrants based on the findings.

Key Words: Jeju island, immigrant, immigration feature, level of immigration adaptation, level of life satisfaction

교신: 황경수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E-Mail: kshwang@jejunu.ac.kr)

제주지역 정착이주민의 이주특성 및 이주적응도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논문투고일: 2017. 01. 12.

심사완료일: 2017. 02. 12.

게재확정일: 2017. 02. 16.